

15.曾子曰 脅肩諂笑 病于夏畦. 子路曰 未同而言 觀其色赧赧然 非()之所知也. 由是觀之 則君子之所()可知已矣.

16. 孟子曰 今有人日()其鄰之雞者 或告之曰 是非君子之道. 曰 請損之 月()一雞 以待來年 然後已. 如知其非() 斯()已矣 何待來年.

17. “曰 夫物之不齊 物之情也 或相倍蓰 或相什伯 或相千萬. 子㉠比而同之 是亂天下也. 巨履小履同賈 人豈爲之哉 從許子之道 相率而爲僞者也 惡能治國家”에서 ㉠比의 의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 ① 從 ② 次 ③ 肩 ④ 并 ⑤ 與

[18~20] 다음 문장을 해석하시오

18. 夫物之不齊 物之情也 或相倍蓰 或相什伯 或相千萬. 子比而同之 是亂天下也. 巨履小履同賈 人豈爲之哉 從許子之道 相率而爲僞者也 惡能治國家

19. 他日過之 狐狸食之 蠅蚋姑嘬之. 其頰有泚 睨而不視. 夫泚也 非爲人泚 中心達於面目. 蓋歸反藁裡 而掩之. 掩之誠是也 則孝子仁人之掩其親 亦必有道矣. 徐子以告夷子. 夷子憮然爲閒曰 命之矣.

20. 有攸不惟臣 東征 綏厥士女 匪厥玄黃 紹我周王見休 惟臣附于大邑周.

수고하셨습니다

[해 답]

- | | |
|---------------|-------------------------|
| 1. 鐵, 爲 | 2. 農夫 |
| 3. 稼穡, 禽獸, 司徒 | 4. 江漢, 秋陽 |
| 5. 徒, 亂 | 6. 尺, 尋 |
| 7. 乘, 賤工 | 8. 範, 詭遇 |
| 9. 夫子, 順 | 10. 廣居, 正位, 大道, 淫, 移, 屈 |
| 11. 質, 弔, 弔 | 12. 室, 家 |
| 13. 穴隙, 牆 | 14. 成, 潔, 備, 田 |
| 15. 由, 養 | 16. 攘, 攘, 義, 速 |

17. ②

18. 물건이 똑같지 않은 것은 물건의 실정이다. 혹은 서로 배가되고 다섯배가 되고 혹은 서로 십배가 되고 백배가 되고, 혹은 서로 천배가 되고, 만배가 되는 것인데 그대가 나란히하여 똑같이 한다면, 이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큰(좋은) 신발과 작은(나쁜) 신발의 값을 똑같이 한다면 사람이 어찌 그것(좋은 것)을 만들겠는가? 허자의 도를 따른다면 서로 이끌어서 거짓을 하게 할 것이니 어찌 능히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19. 다른날 지나갈 때 여우와 샅쟁이가 그것을 먹고 파리와 등애가 모여서 빨아먹거늘 그의 이마에 땀이나고 결눈질하고 정시하지 못하였다. 땀나는 것은 남 때문에 땀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이 얼굴과 눈에 달한 것이니, 돌아가서 흙수레와 삼태기로 흙을 담아 그것을 덮었으니 덮은 것이 진실로 옳다면 효자, 인인이 그 아버지를 덮는 것은 또한 반드시 도가 있을 것이다. 서자가 이 말로써 이자에게 고하였다. 이자는 무연히 잠시 있다 말하길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였다.

20. 신하가 되지 않는 자가 있으니, 동쪽으로 정벌하여 그 사녀들을 편안하게 함에 그들이 검고 누런 비단을 광주리에 담고 와서 우리 주왕을 섬겨 아름다움을 받아 큰도읍인 주에 신하로 복종했다.